

■ 여의도칼럼

커피 광고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없다

최윤식 / 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

광고는 포장술이 아니다. 진실 전하기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 ▷그런 옷은 거저 줘도 안 입는다. 내 나이 오십이 넘었는데 뒤에 모자가 달리고...(연정희 前법무장관 부인) ▷양주가 독해 맥주를 타서 마시는 것이다 (진형구 前대검 공안부장) ▷씨랜드가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으며 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前화성 군수) ▷올해 말까지 순수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김종필 前총리)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다(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한국일보가 뽑은 지난해 10대 거짓말 가운데 일부다. "성경에 손을 얹고..." 혹은 "직위를 걸고..." 진실이라던 공언(公言)들은 돌아서면 공언(空言)으로 들 통난다. "정치를 해보니 나보다 웃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역설이 시니컬하게 가슴을 울린다.

진실에 대한 신념

흔히 PR이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연장선에서 광고 또한 '그럴 듯한 사기술' 내지는 '별 볼일 없는 상품을 폼(?)나게 포장하는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런 광고주는 제품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광고회사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더한다. 이런 소비자는 1단 짜리 손톱만한 기사는 100% 믿어도 광고는 전면이라도 50%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광고인이 국회의원과 함께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선두 자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

광고라는 것이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아까운 돈을 주고 시간과 공간을 사서 벌이는 판매촉진 활동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좋다고 마구 떠드는 행위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의 광고가 그런 가정이 별반 잘못되지 않음을 충실하게 확인시켜 주기도 했고. 소비자는 내 아내요, 내 아이들이다. 그들을 속이지 말라. 사람들이 믿지 않을수록 광고는 진실해야 한다.

클로드 홉킨스도 <과학적 광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광고 자체를 세일즈맨으로 취급하라. 광고는 인쇄된 세일즈맨 십, 즉 광고의 경우나 실제 세일즈맨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세일즈맨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들은 구매자를 질리게 한다. 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의혹만 살뿐이다. 성공한 세일즈맨들 가운데 명연설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자신의 고객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아는 평범하고 진지한 사람들일 뿐이다. 광고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다."

광고회사 맥캔에릭슨 현관 손잡이에는 그들의 광고철학을 한마디로 응축한 "Truth Well

Told(잘 표현된 진실)”라고 새겨져 있었다. 광고는 제품이 아니라 기업의 인격을 팔아야 한다. 광고가 하는 일이란 상표개성을 만드는 일이다. 내 상표가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쳐야 할 것인가? 쾌활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신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탕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진실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없다. 그것은 나의 신념이다. 빌 번버크의 광고정신 또한 한마디로 '진실에 대한 신념'이었다.

벌거벗은 진실이 역사가 된다

취꼬리만한 월급에 살을 에이는 추위, 끊임없이 찾아드는 위험.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음(남극탐험대원 모집광고 중에서)... 가장 싼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폭스바겐 광고 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 전보다 훨씬 빨리 취하는 듯한 아버지께(시바스리갈 광고 중에서)... 에이비스는 2등에 불과합니다(에이비스의 No2 캠페인 중에서)... 이런 광고들은 그 벌거벗은 진실로 광고사의 전설이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를 즐겨 본다. 결혼도 포기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 한가족처럼 살고 있는 독신녀, 가족들마저 버린 병자나 무연고 노인들을 데려와 사랑으로, 체온으로 겨울을 함께 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내 눈시울도 붉어졌다. 어떤 명작보다도 그 장면이 감동적인 것은 '진실한 마음' 때문이다. 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커피 광고에서가 아니라 <칭찬합시다>에서 만난다.